

촌스럽고 쓸모없다고? “우린 꽃할매”

종로노인복지관, 신노인문화 인식개선 걷기대회

“뭣생겼고 이기적이며 쓸모없다. 고집세고 불만이 많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적힌 풍선. 닥트한 개가 날아오더니 ‘계으르다’고 쓰여진 풍선을 터뜨렸다. 조계사 앞 마당에서 열린 노인인 대한 부정적 인식 깨기 이벤트였다. 이하연(9)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사셔서 아는 것이 많다. 보고 배우고 싶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게으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대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고령화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늙고 의존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고 신노인의 면모를 젊은 세대에 알리고자 어르신들이 거리로 나섰다. 노란 모자, 주황 가방, 파스텔 풍선을 든 채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10월 15일 개최한 신노인문화 인식개선 걷기대회. 조계사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돌아오는 코스에 어르신 1천여명이 참가했다.

“평소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존재를 부당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김지형(75) 어르신은 노인인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대답하며 “경제력이 확보되지 않으니 노인들이 하는 말은 다 일방적 주장으로 들린다. 쓰레기줍기라도 좋으니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줄 때 우리 역시 당당할 수 있다”며 노인들이 무기력한 존재로 몰려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

라고 말했다.

황수해(73) 어르신 또한 조심스레 입을 뗐다. “젊은 사람들이 어르들을 공격할 줄 모른다. 예의가 바르실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 역시 자리잡게 될텐데 오늘날 사회에서 도덕을 찾아보기 힘든것도 예절 문화가 퇴색해서 그런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돼 있었던 이유로 소통부족을 꼽은 것이다. 참가자

“
늙고 의존적 이미지 탈피 노력
걷기 일정에 1천여 어르신 참가
지혜롭고 활동적인 신노인 부각

”

들은 ‘독립적이고 지혜로우며 존경받는 노인이 되겠다’는 피켓을 앞세우고 종로구 일대를 1시간동안 걸었다.

정관 스님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노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노인인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사회에 확산되고 어르신들 역시 사회에 기여하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분들로 거듭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10월 15일 개최한 신노인문화 인식개선 걷기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환한 모습으로 조계사를 나서고 있다.

타냈다. 참가 어르신들은 각자 소원을 담은 풍선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대다수가 가족 건강을 염원하는 글로 채워졌다. “나라발전”이라고 쓴 풍선도 볼 수 있었다.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국민들 전부 화합하고 돈독한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는 박영자(71) 어르신의 풍선이었다. 박 어르신은 “70평생 살아온 나라에 애정이 담길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욕심없고 고집센

노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어한다”고 답했다.

남정훈(28)씨도 “어르신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분들이 가진 지혜에 감탄하게 된다”며 “세대간 갈등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부족해서 빚어지는 일이다. 젊은이들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미얀마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지구촌공생회-백천문화재단, 도서관 건립 예정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10월 13일 백천문화재단과 미얀마 제야아웅 마하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백천문화재단은 미얀마 양곤주홀레구 타운십에 위치한 제야아웅 마하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도서관 건립을 위해 1천8백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마하학교 도서관은 20여 평 규모로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물 신축 뿐 아니라 도서 및 책장 등 기자재 지원도 함께 이뤄져 도서관이 완공되면 아이들이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제야아웅 마하학교는 조계종 마하회 의 1억4백만원 후원으로 지난 2012년 건립된 학교. 그전까지 제야아웅 사원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실이 없어 150여 명의 아이들이 스님 처소나 법당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당시 초등학생 200명으로 시작한 제야아웅 마하학교는 현재 중등 교과과정까지 개설돼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지구촌공생회는 “미얀마에는 아직도



10월 13일 지구촌공생회 서울 사무국에서 백천문화재단과 지구촌공생회가 미얀마 제야아웅 마하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많은 아이들이 등록금이 비싼 공립학교를 다니지 못해 열악한 환경의 사원학교에서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며 마하학교 도서관이 건립되면 꾸준히 모니터링과 도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전기 시설이 없어 어둡고 더운 교실에서 학습을 이어가야 하는 제야아웅 마하학교를 비롯한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만화가 꿈꾸는 청소년이라면?

나래꿈터, 만화공모전·동아리 참여자 모집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나래꿈터(센터장 보련)는 ‘제1회 꿈의 만화 공모전’ 참여자를 모집한다.

꿈의 만화 공모전은 만화가나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경험과 기회를 주고 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사다.

만화 공모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만화작가와의 만남이 준비되며 만화 창작에 대한 궁금증과 직업인으로서의 만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이 마련된다.

참가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직업·꿈에 대한 주제로 8컷만화를 그려 제출하면 된다. 1인당 2작품으로 한정되며 작품은 10월 30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한다. 이와 함께 나래꿈터에서는 만화에 관심있어하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관심을 나눌 수 있도록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550-3628

배현진 기자

“뚝뚝, 희망다발 배달 왔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꽃배달 신청자 모집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와 비영리민간단체 착한사람들(회장 송정준)은 10월 9일 희망꽃배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사람들”은 저소득 이웃들에게 꽃배달 지원사업을 통해 나눔 활동 확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단체.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상 기념일을 챙길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고자 발족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거주 최저 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5가정에 매월 꽃바구니, 케이크, 축하 메시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대상자 모집과 선정, 착한사람들은 희망꽃배달을 매월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현욱 실장은 “착한사람들과 함께하는 희망꽃배달 지

원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착한사람들과 함께하는 희망꽃배달 지원사업은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은 한부모가족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추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

접수는 매월 20일까지 받는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인문학과 함께 하는 가을데이트

중림·은평 복지관, 한국사부터 노후설계까지 인문강좌 마련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 (02)362-3348)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사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고대, 중세, 근세, 근 현대사 등 한국사의 주요한 인물과 사건을 알기 쉽게 익히며 한국사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다.

청량교 김규태 교사가 강의를 맡아 우리 역사 중 중요한 사건을 짚어가며 강의의 펼칠 계획이다.

강좌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총 4회기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수시로 접수하며 대상 제한은 없다.

복지관 측은 “자신만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 (02)385-1351)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노년 문

화 정착을 위하여 ‘어르신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다.

노후설계, 노년기 사회참여 및 관계형성,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건강관리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0회기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이어진다.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5천원이다.

복지관측은 “어르신 아카데미는 노후의 지적욕구 충족과 효율적인 여가선용으로 제2의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홍천군복지관, 장애인육상대회 선전

선수 5명, 금메달 5개 획득

제2회 강원도 장애인육상대회에서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 소속 5명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

10월 10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이뤄진 경기에서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조준연(28·지적장애2급)씨는 육상 일반 트랙 100m와 8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허일혁(17·지적장애3급)군은 육상 고등 트랙 100m 금메달과 200m 은메달, 심영미(22·지적장애2급)씨는 여자 일반 트랙 1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진주(22·지적장애3급)씨는 여자 일반 트랙



강원도 장애인육상대회에서 입상한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소속 선수들이 메달을 걸고 즐거워하고 있다.

200m 금메달과 100m 은메달, 최은희(17·지적장애3급)양은 고등 필드 창던지기 동메달과 포환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배현진 기자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경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243-6333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무구스님과 함께하는 인도불교 성지순례!

성지순례+세계문화유산 탐방 할인특전에 선착순으로 모집시다!!!

- ▶ 일시 : 2014년 11월 26일~12월 5일(9박10일)
- ▶ 여정 : 델리-아우랑가바드(엘로라 석굴사원, 아잔타 석굴사원)-보팔(산치대탑)-오차(사원)-카주라호(사원)-사르나트(늑야원)-아라라(타지마할)-델리-인천공항
- ▶ 경비 : 1인/ ₩2,800,000
- ▶ 문의전화 : 우리출판사 02-313-5047 · 010-5474-1233
-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16-214784(수호사 김동금)
- ※ 전 일정 호텔 숙박 및 한식 제공으로 인도여행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